

통학사랑 운전자 · 안전지도사 교육 실시

-일시: 2021.10.14.(목) 3:30~4:00. 장소: 교무실. 강사: 원감-

전주송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운전은 「인지-판단-조작」이라고 하는 3가지 단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중 판단은 예측과 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예측을 생략하고 곧바로 운전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운전자가 습득한 지식과 경험에 의해 습관화된 행동이 반사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로에서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것과 같은 정형화된 상황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 「위험예측」이란?

위험예측은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흔하지 않은 상황을 미리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고 어떻게 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을지 예상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운전에서의 위험예측이란 특정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여 실제 운전행동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다.

○ 「위험예측」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

1.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운전은 눈으로 보아야 할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 내비게이션 조작 등은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현재 상황에 대한 위험예측을 어렵게 하므로 운전 중 사용을 삼간다.

2. 보이지 않는 부분도 위험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커브길이나 고갯마루, 주정차 차량으로 가려진 부분 등에서 갑작스러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3. 누구나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다. 당연히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지만, 혹시라도 법규 위반하는 운전자나 보행자는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4.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급한 상태에서는 주변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할 수 있으며, 주의력과 사고력이 저하되어 위험예측이 어려워지므로 느긋한 마음과 충분한 여유를 갖고 운전하도록 한다.

5. 경험을 통한 예측은 한계가 있다

경험으로 얻은 위험상황 대처법에는 한계가 있다. 경험해보지 못한 위험도 미리 알고 있어야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관심과 지식습득을 통해 위기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 상황별 위험예측 및 방어운전



갑작스럽게 차도로 뛰어드는 보행자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차도로 뛰어들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보행자 길을 지날 때에는 속력을 약간 줄이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지선을 위반하여 정지한 자동차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때문에 주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히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시정지 하여 주변을 살핀 후 서행으로 통과 하도록 한다.



문을 열 때 후방 이륜차 주의

도로에 정차하여 문을 열 때 후방에서 달려오는 이륜차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동승자가 하차할 경우 운전자가 먼저 후방상황을 살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내리도록 한다.



측면을 파고드는 이륜차 주의

우회전 시 측면을 파고드는 이륜차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다. 차량과 도로 가장자리 사이의 간격을 좁혀 이륜차가 함부로 접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측면을 살펴보며 우회전 하여야 한다.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

편도1차로 도로에서는 추월이나 장애물을 피할 목적으로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들이 있다. 특히 골목길이나 주차장에서 빠져나올 때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도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여 주변을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급차로변경 차량

교차로에서는 1차로가 좌회전 차로임을 알고 뒤늦게 빠져나오려는 차량들이 있다. 특히 신호가 바뀌기 전에 통과하려는 욕심 때문에 급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신호변경 전 예측출발 차량

교차로에서는 자기방향 신호를 미리 예측하고 출발하는 차량들이 있다. 그러므로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또한 교차로 통과 전 미리 속력을 조절하여 갑작스러운 신호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향전환 시 보행자 주의

교차로 등에서 방향전환 시 주변 차량들을 살피느라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역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길을 건너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방향 전환 시 보행자를 주의하도록 한다.



방향지시등을 이용한 진행방향 알림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보여주는 것이다. 교차로 등에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이용하여 진행방향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자신이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의 움직임을 예측한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로드킬 사고 주의

사람이 자주 지나다니지 않는 국도나 산길에서는 속력을 낮춰서 운행해야 한다. 가급적 중앙선 쪽에 붙어서 운전하여 가장자리에서 튀어 나오는 동물과의 충돌을 방지하며, 야생동물 발견 시에는 속력을 줄여 천천히 접근하고 전조등을 끄고 경음기를 살짝 울려 야생동물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한다.

※ 로드킬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구조센터나 지자체 콜센터 등에 연락하여 동물 사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감염병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함부로 동물 사체를 만지지 않도록 하며, 접촉했을 경우 손과 옷, 사용물품 등을 깨끗이 씻고 소독한다.

○ 기상상태별 위험예측 및 방어운전



비오는 날 안전운전 방법

빗길에서는 주변차량들로부터 튀어오르는 물로 인해 시야를 잃을 수 있다. 특히 대형차량에서는 보다 많은 양의 물이 튀어 오를 수 있으므로 주변 차량과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젖은 노면에서는 쉽게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급격한 운전대 조작을 삼가고 20% 이상 속력을 줄여야 한다. 또한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앞 차와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안개길 운전 시 유의사항

안개 낀 상황에서는 주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속력을 50% 이상 감속하고 차간거리를 넉넉히 유지해야 한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개등을 작동시키고 창문을 약간 열어 눈으로 보지 못한 위험을 소리를 통해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눈길 운전 시 유의사항

눈길에서는 50% 이상 감속하고 차간거리를 넉넉히 유지하여 앞 차와의 추돌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또 급제동이나 급격한 운전대 조작을 피하고 앞 차가 지나간 흔적을 따라 운행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반대편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는지를 살펴 만약의 위험에 대비하도록 한다.